



패널
토의

사회학적 견지에서

安 啓 春 박사

<연세대학교사회학교수>

먼저 論者의 立場에 대한 解明이 필요할 것 같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社會學的 見地에서 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問題에 대해서 社會學界의 一般的인 見解란 있기 어렵다. 따라서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은 社會學을 공부하는 한 個人의 의견일 뿐이지 社會學이나 社會學界를 代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資料가 매우 부족한 狀態이고 충분히 檢討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內容이 지극히 皮상적이고 印象的인 判斷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두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大前提는 “우리 社會의 發展”이다. 個人이나 어떤 職業團體의 利益이 全體社會의 發展과 항상 一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兩者가 調和를 이룬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看護員의 海外就業이 우리 社會의 發展과 看護員의 利益에 어떤 影響을 미치게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看護員의 海外就業은 크게 就業移民과 一時的 海外就業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오늘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主로 後者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中心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과거 數

年동안 看護員의 海外就業은 우리나라 政府當局에 의하여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고 就業者의 數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政府當局의 方針은 看護員의 海外就業이 우리 社會의 발전에 이롭다는 판단 아래 수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看護員 海外就業의 利點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① 顯備(失業)問題의 解決 ② 外貨獲得 ③ 技術習得 ④ 文化交流를 통한 國威宣揚등이다. 그러던 이 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事實이며 얼마나 實効를 거두고 있는지 음미해 볼 必要가 있다.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女性의 顯備機會는 매우 制限되어 있어서 就業을 희망하는 많은 女性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看護員의 경우 이것이 事實인가? 周知하는 바와같이 失業이란 就業의 意思를 가지고 있으면서 就業의 機會를 갖지 못하고 있는 狀態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看護員中에 失業者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精確한 統計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看護員의 경우 失業問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만약 看護員의 失業이 심각한 문제라면 그것은 看護員의 社會的需要와 供給計劃의 蹉跌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一時的인 海外就業:

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解決策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보다 根本的인 대책은 需要와 供給을 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나라의 國民들이 훈련된 看護員의 서비스를 끌고루 받고 있는나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國民들을 위한 看護서비스는 度外視한채 看護員의 海外就業에 重點을 둔다면 이는 看護員들의 利益을 위해서나 우리 社會의 發展을 위해서나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흔히 國內의 看護員의 취업조건이 나쁘므로 취업조건이 좋은 外國에 취업을 장려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것은 看護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 국내에 남아서 취업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國民保健을 끌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看護員의 國內에서의 就業條件을 改善하는 것이 보다 根本的인 문제이다.

다음으로 外貨의 獲得문제를 생각해 보자. 經濟發展을 위해서 外貨(資本)가 必要한 것은 물론이며 看護員의 해외취업을 통해서 상당한 外貨를 벌어들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단순히 벌어들인 額數만을 가지고 그것이 이롭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의 속단의 열려가 있다. 벌어들인 外貨의 額數만을 다질게 아니라 그들을 養成하는데 國家에서 投入한 노력과 경비가 얼마이며 그들이 國內에서 일함으로써 우리 社會에 얼마만큼의 寄與를 할 수 있는 가를 考慮에 넣어야 한다. 외화의 액수는 따지기 쉽지만 後者は 계산이 용이치 않을 것이다. 계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論理는 성립되지 않는다. 個人的으로는 돈도 벌고 外國 구경도 하게 되니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社會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들이 벌어들인 外貨의 액수만을 내세워 그것이 有益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벌어들인 外貨가 어떻게 쓰이는가의 문제도 별도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技術習得의 문제도 再考할 餘地가 있다고 생각 된다. 北美의 就業의 경우에는 새

로운 知識과 技術을 습득할 수 있으나 海外就業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西獨의 경우에는 새로운 技術의 習得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들었다. 그리고 실속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習得했다고 해도 그것이 다시 우리 社會에서 活用되지 않는 限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향상된 看護知識과 技術이 活用될 수 있을 만한 條件이 形成되어 있는지 검토해 볼 必要가 있다. 만약 그러한 條件이 形成되어 있지 못하다면 上昇된 期待水準이 오히려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要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우가 外國에서 돌아오면 退職해 버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속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습득했다 해도 그것이 死藏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技術의 習得은 간호원 海外就業의 利點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國威宣揚문제도 일부에서 내세운 名分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해외에 취업하는 우리나라의 看護員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평판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 생활관습 등 文化의 差異로 인하여 간호원들의 現地適應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現地の 文化를 이해하는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文化를 소개하여 國위를 선양할 機會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들로 안다. 좋은 評價의 이면에는 여러가지 나쁜 評價도 없지 않아서 國위를 선양하기는 커녕 國위를 손상시키는 예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일부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도”란 비난도 있지 않은가? 國家間的 정치적, 경제적 功績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호원의 해외취업이 國위선양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 어느 한 集團의 社會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된다.

이밖에도 看護員의 海外就業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하나는 海外就業자들이 海外移民의 可能性이 많다는 점이다. 과잉인구가 운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海外移民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벌어들

높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 社會에서 필요하고 활용될 수 있고 우리 社會의 發展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어 보내서는 안된다. 看護員의 경우 海外移民이 우리 社會를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막대한 노력과 경비를 들여 간호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筆者의 見解로는 간호원의 海外移民은 一種의 頭腦流出(Brain Drain)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海外就業後 귀국한다해도 그들이 都市에 머무를 可能性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醫療人의 都市集中現象을 더욱 加速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물론 農村과 都市의 均衡있는 發展을 阻害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主題 發表에서 언급된 既婚 看護員의 취업문제는 人道主義的 觀點에서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되므로 별도의 對策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어느 社會에서나 그 社會에서 必要로 하는 만큼의 人力을 教育機關에서 養成하는 것을 하나의 原則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原則을 前提로 한다면 看護員의 海外就業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展望이 밝지 않다. 그러므로 一時的인 海外의 需要에 應答하기 위하여 國內의 教育制度를 改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看護員人力의 供給은 우리 社會의 需要와 實情에 맞게 計劃되어야 한다. 그리고 看護員의 해외취업은 可能한 限 잉여노동력을 흡수하여 短期間의 訓練을 시켜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금까지 看護員의 海外就業에 관해서 否定的인 側面을 많이 이야기 하였지만 그것은 筆者가 悲觀主義者여서도 아니고 政府의 施策을 非難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 社會의 發展과 看護員의 利益을 위한 길이 무엇이겠는가를 보다 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말한 것 뿐이다.

